

광주·전남의 전설을 통해 본 남도인의 인성과 지향

Personality and Aspiration of Kwangju, Cheonnam People in View of Legend

나경수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by Na Kyung-Soo

설화는 대표적인 구비문학(口碑文學)의 하나다. 구비(口碑)는 구(口)와 비(碑)의 합성어다. 구(口)란 입을 뜻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입이 아니라 말을 뜻한다. 또 비(碑)란 비석이다. 돌을 합해 놓고 보면, 구비란 언뜻 말로 새겨진 비석이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비석의 뜻은 의미상 전의(軀意)를 거쳐 내구성, 즉 기억(記憶)을 의미한다. 모든 구비문학은 말과 기억에 의존한다. 표현되지 않고 있을 때는 기억으로 남고, 표현될 때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구비문학이다. 말은 일회적이며 현장적이지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기재로서 기억이 있다. 기록문학은 한번 쓰여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은 말과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구비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중 하나는 공동작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창작하고 전승시키는 집단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는 것이다.

설화는 이러한 구비문학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는 한편 이야기 형식을 취한다. 구비문학 중 이야기 형식을 가진 것이 설화다. 설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의존해서 말로 전해져 왔다는 속성까지를 더해 놓고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옛날 이야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 대개 옛날 이야기와 설화가 상통하는 말이지만 설화는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이 그것이다.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로서 신이 등장하고, 또 태초에 우주나 인류, 또는 국가 등의 기원적 사실을 설명한다. 전설

은 기억되는 역사라고도 하는데,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또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또 민담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로 흥미나 교훈 위주의 내용을 가진다. 신화, 전설, 민담 중 특히 지역성이 강한 설화는 전설이다.

광주·전남지역, 또는 문화권적 범위로 확대한 호남지역에는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신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광역의 지역적 특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꼽아지는 작품이 건국신화인데 호남지역은 주지하다시피 건국신화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후백제가 고려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왕족말살정책(王族抹殺政策) 및 신민화정책(臣民化政策)과 함께 그들이 가졌던 신화까지 없애 버렸던 것이다. 대신에 호남 또는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전설이 전한다. 전설은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전해오는 많은 전설 중에는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인성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 많아 관심을 모은다. 오랜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스란히 한 몸에 담아 지금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 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필자의 현장조사 경험과 여러 형태로 채록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함의(含意)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로 일관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전설군을 먼저 선별해 본다. 즉 내륙지역과 해안도서지역에 각각 밀도 높게 전승되고 있는 일군의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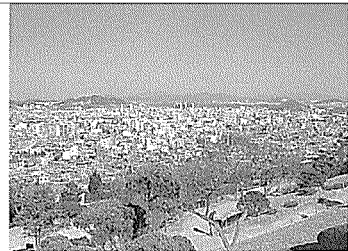
내륙지역에는 산과 관련된 전설, 예를 들면 지리산, 무등산, 천관산 등 이 지역에 소재한 산과 그 산을 지키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산신, 그리고 그들과 태조 이성계와의 관계가 내용을 이루는 일군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해



광주시 전경



나주시 전경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시 전경

안 도서지역에는 대도형전설(大盜型傳説), 예를 들면 전우치(田禹治)나 송징장군(宋徵將軍), 또는 무명의 해적으로 말해지는 큰 도둑들이 바닷가나 섬에 본거지를 두고서 나라에 올리는 진상품이나 세금을 강탈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다.

내륙지역에 전하는 산신과 관련된 전설의 내용은 대개 이렇다. 옛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산천신(山川神)들에게 허락을 받고 다녔다. 어느 날 지리산에 올라가 지리산신에게 조선을 건국할테니 도와주십사고 빌었다. 그러나 지리산신은 역성혁명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며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다. 또 무등산에 올라가 역시 산신의 도움을 청했지만 무등산신도 거절했다. 사정은 장흥의 천관산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런 산신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역성혁명에 성공하여 조선을 세웠다. 그가 임금이 되자 자신을 도와준 전국의 산천신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다. 그러나 지리산신, 무등산신, 천관산신 등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상 대신 벌을 주거나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산신전설에 의하면 본래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과 천관산을 이성계가 전라도로 귀양보냈다 하고, 또 무등산신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무등산의 본래 명칭은 불교용어에서 따온 것이지만 전설과 관련지어 민간어원적으로 그 이름을 해석하기도 한다. 즉 없을 무(無)와 등급 등(等)을 합해 등급이 없는, 다시 말해 이성계가 벼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무등산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다.

광양에 전하는 전우치전설이나 완도에 전하는 송징전설에서는 하나같이 그들을 나라에 대항한 큰 도적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바닷길을 통해 올리는 진상품이나 세금으로 거둬가는 쌀을 실은 세미선(稅米船)을 털어 지역민을 구휼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외에도 도서지역에는 옛날 큰 도둑이 살았다고 전하고, 또 그들 민중영웅들이 국가의 학정에 맞서서 싸웠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여천 돌산면 안도지역에 전해오는 해적전설이 전형적인 예며 그러한 유형의 전설은 인근 도서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다.

앞에서 말한 산신전설(山神傳説)과 대도전설

(大盜傳説)은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 또는 지역민의 인성과 결부시켜 놓고 보면 이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게 된다. 산신전설이 이성계라는 특정인과 결부되어 있지만 일반화시키고 보면 불의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정신을 표상하고 있다. 또 대도전설에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대적 관계가 표출되어 있다. 나라의 세금을 빼앗는 일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가렴주구와 수탈의 제일번지였던 광주·전남 지역이고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짐작하게 된다. 이들 전설에서 말하는 적대적인 대상은 무조건적인 중앙정부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정권 또는 위정자였던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주화와 관련된 절의(節義)의 성지(聖地)처럼 말해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의를 추종하고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이들 전설이 웅변적으로 지시하듯 이렇듯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설 속에 이미 투사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백제 유민들이 신라에 저항했고, 또 장보고가 경주의 중앙정부에 대해 의로서 대항을 했으며, 후백제가 고려와 겨루었다.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구한말 때 의병 전체의 약 60%가 전라도 사람이었다고 하고, 구한말 동학혁명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 지역이 당시 마지막 본거지며 접전지이기도 했다. 일제시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나 암태도의 소작쟁의 등 민족운동으로까지 승화했던 저항의 역사를 합하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통해서 불의에 항거했던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의 의기는 자못 송고하기조차 했던 것이다.

아직도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곳이 있다. 화순의 운주사(雲住寺)가 그곳이다. 현장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곳에서 있는 탑상(塔像)은 모두 정통 불교미술의 상식을 훨씬 벗어나 있는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아직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



광주 중앙초등학교 정문쪽에서 본 제봉로



광주 황금동 거리



광주 전남도청 뒷담길

지 않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곳 운주사에 있는 와불(臥佛)에 관련해서 전해오는 전설 한 토막 속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을 통해 배태되고 점층되어 왔던 지역민의 기대가 집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를 든 두 유형의 전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일설에 의하면 옛날 운주도사라는 분이 그 주변을 살펴보니 이곳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세우면 수도가 옮겨 설 형국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도술을 부려 하늘에서 석공들을 불러내려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만들게 했다. 일이 거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큰 돌부처 두 분만 모시던 되었다. 그런데 어린 한 일꾼이 일에 지친 나머지 그만 닭울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닭울음 소리를 들은 하늘의 석공들은 곧 날이 밝을 것으로 알고 돌부처를 세우려다 말고 서둘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지금도 운주산에는 그때 석공들이 세우려다 만 돌부처가 나란히 바위인 채로 누워 있으며, 그래서 수도가 이곳에 옮겨오지 못했다고 지역민들은 안타까움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원격지에 놓였던 관계로 줄곧 역사를 통해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보지 못했으며, 잠재력은 뛰어나면서도 한번도 화려한 문화를 꽃피워 보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의 이런 한서린 정한이 전설을 통해 말해지고 있는 예다.

그러나 많은 운주사의 전설 중에는 지역적, 사회적 대립만을 갈등소(葛藤素)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국적 지향이 설화되고 있는 예도 보인다. 운주사가 있는 곳은 인체에 비유하면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또 배에 비유되어 태백산맥이 무거워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곳에 무게를 실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전설도 전한다. 그래서 이곳에 천불천탑을 세우면 나라가 기울지 않으며, 또 왜구의 침략도 막을 수 있다는 민족의식이 두텁게 전설에 채색되어 있다. 앞의 와불전설이 민중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뒤의 형국전설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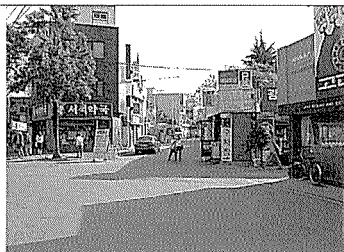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독일의 민속학사를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그림형제로부터 시작된 독일민족의 민속에 대한 관심은 결국 튜튼족에 대한 애정과 애착으로 귀결되었다. 민중(民衆)을 통해서 민족을 찾고, 민족(民族)을 근거로 하여 민중을 일깨우려 했던 시대적 경향성이 독일의 민속학사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역사는 누구의 소유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結晶)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무정형의 문화사적 현상일 뿐이다. 기억된 역사로서, 민중의 공동심(共同心意)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 전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층적이며 또한 가장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해석의 한 양식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예거했던 광주·전남권에 전승되어 온 전설들 속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이 스며 있다. 수탈을 일삼는 지배층에 대한 저항과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의식이 전설이라는 서사문학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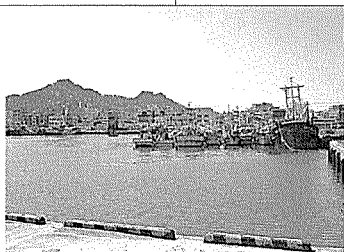
광주·전남권을 중핵으로 하는 호남은 몇 가지 아호(雅號)를 가졌다. 예향(藝鄕)이란 가장 흔하게 듣는 호남의 이칭이며, 또 의향(義鄕)이라는 말 역시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예향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안다. 다만 의향이라는 별칭에 대해 이해가 촉구된다. 의(義)에 대한 본질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보면, 광주·전남이 의향으로 불려온 것이 한갓 미사여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맹자(孟子)는 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풀이하였다. 수는 부끄러움이고, 오는 미움이다. 맹자가 말한 인이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일체화되는 심성을 뜻하는 것에 반해서 의는 부끄러움과 미움이라는 정서로서 주체와 객체를 준별하는 심성을 뜻한다.

수(羞, 부끄러움): 객체 주체 주체 자이의 긍정
오(惡, 미움): 객체 주체 객체 자이의 긍정



광주 구 시청부근에서 전남문이 있던 쪽을 본 모습



목포항 전경. 항구 뒤로 보이는 유달산은 목포의 자연적 랜드마크가 된다.



목포항 주변의 가로 모습. 일제 시대 석조 건물이 낯설지 않다.

수(羞)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또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형식이다. 책망과 뉘우침은 부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오(惡)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재나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면 객체에 대해 부정으로 맞서는 형식이다. 부정에 따른 부정의 연속이 부호로 표기된다. 부정에 대한 부정은 결국 긍정을 낳는다.¹⁾

광주 · 전남 또는 호남을 주체로 보면, 불의의 수탈을 거듭해온 지배층이나 불의의 침략을 일삼은 외적은 객체가 될 것이다. 의란 한 개인에게서만 아니라 집단적 심성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객체인 지배층 또는 외적이 민중이나 민족을 위협할 때 이에 맞서 싸우는 부정의 연속이 의로 표상될 수 있다.

무등산, 지리산, 천관산 등의 산신(山神)이 역성혁명을 허락치 않았다는 전설은 그 산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인성을 형상화한 설화요, 또한 해안도서지역에 전승되어 온 역적장수형전설 역시 불의의 지배층에 대해 저항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그린 것이다. 불의와 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객체와 주체로 추상화되면서 하나의 전형을 이루게 된다.

한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적대적 관계를 이룰 때 마찬가지로 객체와 주체라는 추상화를 통해서 대립갈등이 공식화된다. 해안도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설화로서 전우치전설에서는 그가 도술을 부려 중국 황실의 황금 들보를 뽑아 왔다 하고, 또 송징전설에서는 송징장군이 왜구를 물리쳐 줄 영웅으로 평가되면서 한편으로는 호국신(護國神)으로 신격화되어 모셔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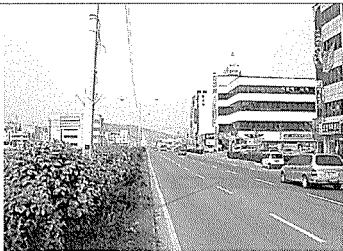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했던 의(義)의 한 형태인 “객체 주체 객체 자아의 긍정”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지역 사람들은 굳건한 자아 긍정의 의식을 지향해 왔던 것이다. 앞에서 민중적 지향과 민족적 지향이 둘이 아니라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호남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체적 자아를 실현해야 할 경우가 주어지면 틀림없이 위 공식에 그 상황을 대입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객체가 지배층이면 지배층에 대해서, 외적이면 외적에 대해서, 독재자면 독재

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군부(新軍部)면 신군부에 대해서 이들과 맞서는 주체로서의 호남인은 자아의 긍정이나 생존의 보장을 위해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지향은 하나의 집단적 심의요, 기층적인 인성이며, 문법과 같이 견고한 무의식적 지식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언중(言衆)은 나고 자라면서 저절로 언어의 문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화중(話衆)은 자라면서 이야기를 듣고 즐기면서 그 속에 깊숙히 감춰진 의식을 배운다. 전설은 단지 역사요, 문학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있어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을 전수하는 하나의 교과서인 셈이다.

광주 · 전남을 포함한 호남이 의향으로 곱혀온 이유는 그간의 사실(史實)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기저의 원형질적인 심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전설과 같이 집단적 무의식을 담고 있는 민속에 대해 앞으로 크게 관심이 모아져야 할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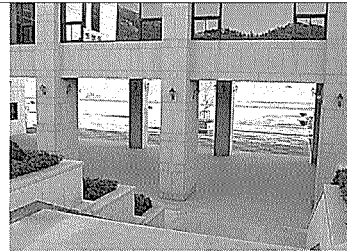
1) 지면관계상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에 미룬다. 출처, <전남의 민속연구> (서울: 집문당, 1994), pp.25~47.



목포 하당의 중앙로



건물 사이로 보이는 유달산, 도시에서의 자기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과 공연장 사이의 필로티, 유일하게 바다로 열려 있다.